

SK글로벌, 결국 법정관리로 가나?

채권단, 추가제안 없으면 수용불가 ... 계열사 임원 소송도 불사

SK글로벌 채권단이 SK글로벌에 대해 청산을 위한 법정관리 신청을 추진키로 했다.

또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석방탄원서를 철회하고 SK글로벌과 SK 등 계열사 경영진 상당수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SK 채권단은 5월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SK그룹이 제출한 <SK글로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SK그룹은 정상화 방안에서 SK글로벌에 대한 SK의 매출채권 중 국내 4500억원, 해외 4500억원 등 9000억원을 출자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채권단 측은 SK글로벌 본사와 관련이 없는 해외 매출채권은 출자전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SK그룹이 제시한 방안은 결국 국내 매출채권 4500억원만 출자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수용불가 이유를 밝혔다.

이어 SK글로벌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이 노력해왔으나 SK글로벌과 관계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더 이상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권단은 5월30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4월 제출한 조기석방 탄원서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와 회사재산 해외 은닉, 주유소 불법매각 등에 연루된 SK글로벌, SK, SK해운 등 계열사 임원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채권단의 방침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담보로 제공된 최태원 회장의 계열사 지분은 모두 처분돼 SK그룹은 사실상 해체될 전망이다.

그러나 채권단의 입장 발표 후 SK글로벌 정상화추진본부는 출자전환 규모에 대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채권단 측도 당장 법정관리를 신청하지는 않겠다는 계획이어서 추가협상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SK사태 일지

2월17일	검찰 SK 압수수색
2월22일	최태원 SK 회장 구속
3월11일	검찰 SK글로벌 분식회계 발표, 금융시장 충격, SK 최태원 회장 사재출연 등 대국민사과
3월12일	최태원 회장 보유주식 전량 SK글로벌 채권단에 담보 제공
3월19일	SK글로벌 채권단 공동관리 개시
3월31일	SK글로벌 주주총회, 완전자본잠식 발표
4월 8일	SK글로벌 해외채권단회의 개최
4월22일	SK글로벌 해외부실 4조원 발표
5월19일	실사단 SK글로벌 실사 결과 자본잠식 4조3874억원
5월28일	채권단 SK글로벌 법정관리 신청 결의

<Chemical Journal 2003/05/30>